

계명문화대, 역량기반 혁신으로 '글로벌 직업교육' 선도



1 제2회 전문대학 데이터 기반
교육성과 분석 포럼
2 채용 맞춤형 취업 준비반



59년의 긴 역사를 가진 계명문화대학교(총장 박승호)는 체계적인 교육과 학업 지원을 통해 지금까지 9만여 명의 전문 직업인을 배출해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아 교육부 주관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2018년 '자율개선대학'과 2021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수행 중이다.

계명문화대는 이를 위해 대학발전계획 'KMCU 2025'가 정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사업 비전을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직업 교육 선도대학'으로 설정했다.

특히 '수요자 맞춤형 교육혁신', '사회 맞춤형 산학 협력 혁신', '지속 가능한 고등직업 교육 혁신'을 각각 사업 영역별 목표로 삼아 현재까지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수요자 맞춤형 교육혁신 분야에서 전공과 교양 과목 전체를 산업체 요구와 직무 분석에 기반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했다. 또 '교육혁신원'을 신설하고, 산하에 교수학습지원센터와 학생성공센터, 인성교육센터를 설치해 학습 과정별로 유형을 세분화했다.

사회 맞춤형 산학 협력 혁신 분야에는 지역 산업체와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산학협력단에 대구시장 표창 및 지자체 감사장 수상, 장학금 기탁 등이 이어졌다.

계명문화대는 지속 가능한 고등직업 교육 혁신을 위해 대학 내 'IR 센터'(Institutional Research Center)를 신설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합리적 성과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 품질 관리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했다.

또 대학 발전 계획과 인재상을 반영한 핵심 역량을 도출하고 진단하는 도구를 개발했다. 성과를 발표하고 국내 교육계에 확산하고자 지난 2월 전국 9개 전문대학과 교육성과 공유 협약을 맺기도 했다.

지난 10월 계명문화대에서 '제2회 전문대학 데이터 기반 교육성과 분석 포럼'을 열어 혁신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 12개 전문대학이 모여 역량기반 교육과정 성과 분석 및 교육 혁신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방안 등 총 10편의 연구 결과를 도출해 공유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박승호 총장은 "미래지향적 교육 혁신이라는 목표 아래 우리 대학이 설정한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규 과정은 물론, 비정규 교육과정까지 계속해서 고도화하겠다"며 "앞으로 대학과 지역 산업간 상생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와 지역 사회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❶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직업교육 선도대학

CAPable Global Citizen

Convergence
소통역량/문화역량

Altruism
도덕성/감성



Professionalism
전공역량/외국어역량

